

하륜의 풍수와 신도안 입지의 비판적 검토

지 종 학*

1. 머리말
2. 천도의 배경 및 신도안 선정
3. 하륜의 지리신법 분석
 - 1) 호순신과 지리신법
 - 2) 부친(하윤린) 묘소의 풍수입지와 한계
 - 3) 하륜의 무악산 풍수입지론
 - 4) 건원릉의 풍수입지 분석
 - 5) 현릉의 풍수입지 분석
4. 신도안 입지의 재평가와 비보 제시
 - 1) 신도안의 풍수입지 분석
 - 2) 두계천과 위왕산의 비보
 - 3) 계룡대 입지의 풍수해석과 비보
5. 맺음말

<국문초록>

계룡산 아래 위치한 신도안은 조선 초 도읍으로 선정되어 궁궐 공사가 진행되던 곳이다. 그러나 하륜은 새로운 풍수이론인 지리신법에 입각해 갑자기 천도불가론을 주장함으로써 10개월간 진행된 공사가 중지되고 천도는 무산되고 만다.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한 공사가 풍수구절 한 마디로 인해 중단될 만큼 당시의 지배계급에게 풍수는 막강한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하륜이 주장한 지리신법은 조선의 풍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지리신

* 서경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zzh1115@hanmail.net)

법의 이론체계에 적지 않은 오류가 지적되고 있으며, 그가 관여한 진주하씨 선영과 왕릉을 새롭게 점검해본 결과 형세론적 관점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하륜이 도읍지로 불리하다고 단정한 신도안의 입지 또한 재점검이 필요한데, 신도안을 풍수이론 중 이기론이 아닌 형세론으로 접근하면 하륜의 판단과는 다른 평가가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신도안 입지에 대한 평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차제에 신도안에 위치한 3군사령부의 입지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주요어: 하륜, 풍수, 신도안, 계룡산, 지리신법

1. 머리말

하륜은 조선 초 신도안으로의 천도계획을 지리신법의 풍수이론을 앞세워 무산시키게 된다. 그리고 태종의 신임 하에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과 태종의 현릉을 소점하는 등 조선의 풍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 이후 지리신법은 조선의 풍수고시과목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지리신법 이론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기론풍수의 정수라 불리는 지리신법의 이론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하륜이 선정한 건원릉과 현릉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신도안에 대한 평가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도안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권선정(2002)¹⁾은 천도과정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을 근거로 연구한바 있고, 이영숙(2001)²⁾은 종교적 관점에서 신도안을 조명한 바 있다. 또 김기모(2003)³⁾는 신도안 입지에 대해 풍수이론

1) 권선정, 『텍스트로서의 신도안 읽기』, 『문화역사지리』 14-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2, 19~36쪽.

2) 이영숙, 『계룡산·신도안 지역의 문화역사 지리적 성격』,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79쪽.

3) 김기모, 『계룡산 도읍시설과 천도논의의 역사적 고찰』,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을 내세워 산태극수태극의 입지라는 연구도 있었다. 하지만 하륜이 내세운 지리신법 이론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다. 이에 본 연구는 하륜이 관여한 그의 선영과 왕릉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그의 풍수관과 지리신법의 이론체계를 살펴보고, 하륜에 의해 천도가 무산되었던 신도안 터에 대해 재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2006년과 2011년 두 차례 계룡대를 방문하여 직접 내부를 둘러보았으며, 신도안 외부는 두계천 물길을 따라 수차례 왕래하며 지형을 조사하였다. 그 외 하륜이 관여한 그의 선영과 왕릉에 대한 모든 현장점검도 병행하였다.

2. 천도의 배경 및 신도안 선정

고려 우왕 14년(1388) 이성계는 최영에 의해 요동 정벌에 나섰으나 세의 불리함을 이유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한다. 그 후 이성계는 친원(親元) 세력을 축출하고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친명(親明)세력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우왕과 창왕을 몰아내고 공양왕을 세우며 자신의 세력을 키우던 이성계는 끝까지 고려왕조를 옹호하던 정몽주·이색·김진양·이승인 등을 제거하고 공양왕을 폐출하였다. 그리고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개성 수창궁에서 1392년 7월 17일 왕위에 올랐다. 이로서 34대 474년간 이어지던 고려왕조는 끝나고 조선왕조 시대가 시작되었다. 한 달 후 8월13일 태조는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지만, 중신들의 반대로 시기를 다소 미루게 된다.⁴⁾

태조의 급작스런 천도 이유와 배경을 볼 것 같으면 무엇보다 430년 간

1~50쪽.

4) 『태조실록』 권2, 태조 1년 9월 3일.

시중(侍中) 배극렴(裴克廉)·조준(趙浚) 등이 온천에 나아가서 아뢰었다.

“가만히 보건대, 한양(漢陽)의 궁궐이 이룩되지 못하고 성곽이 완공되지 못하여서, 호종(扈從)하는 사람이 민가(民家)를 빼앗아 들어가게 됩니다. 기후는 점차 추워 오고 백성들은 돌아갈 데가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궁실과 성곽을 건축하고 각 관사를 배치(配置)하기를 기다려서, 그 후에 도읍을 옮기도록 하소서.” 임금의 옳게 여겨 받아들였다.

지속되던 고려왕조의 수도 개경에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전부터 전해지던 풍수도참설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 즉 고려조에서는 일찍부터 도선기, 도선답산가에서 말하는 개경의 지기쇠왕설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배경이 되었다.⁵⁾ 그러나 개성에 기반을 둔 기득권세력과의 갈등으로 한양으로의 천도 계획이 잠시 주춤하던 사이 계룡산 인근이 갑자기 천도 후보지로 등장하게 되는데, 태조2년 1월 왕가의 태실지를 찾던 권중화가 계룡산 일대를 도읍지로 천거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태조는 김사형·이지란·남은·무학대사를 대동하여 그해 2월 계룡산을 둘러보게 되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조감도를 만들고 행정구역을 개편하며 기초적인 토목공사를 하는 등 실제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계룡산으로의 천도를 준비하던 중 경기도 관찰사 하륜은 송나라 호순신의 풍수이론 지리신법에 입각하여 계룡산 터가 도읍지로서 마땅치 않다고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게 된다. 이로써 10개월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대장군 심효생을 보내어 계룡산에 가서 새 도읍의 공사를 그만두게 하였다. 경기도관찰사 하륜이 상언하였다. 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될 것인데, 계룡산은 지대가 남쪽에 치우쳐서 동면·서면·북면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신이 일찍이 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면서 풍수 관계의 여러 서적을 대강 열람했사온데, 지금 듣건대 계룡산의 땅은, 산은 북서쪽에서 오고 물은 동남쪽으로 흘러간다 하니, 이것은 송나라 호순신이 이른바, ‘물이 장생(長生)을 파(破)하여 쇠퇴(衰敗)가 곧 닥치는 땅’이므로, 도읍을 건설하는데 적당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명하여 글을 바치게 하고 판문하부사 권중화, 판삼사사 정도전, 판중추원사 남재 등으로 하여금 하륜과 더불어 참고하게 하고, 또 고려 왕조의 여러

5) 실제로 고려시대에는 개성에서 남경(한양)으로의 천도가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다. 고려 숙종 때에는 최사추·윤관 등의 건의에 따라 지금의 경복궁 자리보다 위쪽인 현재 청와대 인근에 남경의 궁궐 연흥전을 지었다. 후반기에 들어서는 계속되는 무신정권과 몽고군의 잦은 침입으로 왕실과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자 도선비기 등에 거론된 개성의 지기쇠왕설 등을 이유로 남경으로 일시적인 부분천도를 하였다.

산릉의 길흉을 다시 조사하여 아뢰게 하였다. 이에 봉상시(奉常寺)의 제산릉형지안(諸山陵形止案)의 산수가 오고 간 것으로써 상고해 보니 길흉이 모두 맞았으므로, 이에 심효생에게 명하여 새 도읍의 공사를 그만두게 하니, 중앙과 지방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호씨의 글이 이로부터 비로소 반행(頒行)하게 되었다. 임금이 명하여 고려 왕조의 서운관에 저장된 비록문서를 모두 하륜에게 주어서 고열(考閱)하게 하고는 천도할 땅을 다시 보아서 아뢰게 하였다.⁶⁾

왕조실록의 기록처럼 하륜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된 신도안의 땅을 수파장생(水破長生)의 불리한 터라는 풍수구절 한 마디로 천도를 무산시켰는데, 풍수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과 혼란에 대해 다른 대신들은 별 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성계의 급격한 개혁에 대해 하륜의 계룡산 천도 반대의견에 동조함으로써 저항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하륜의 지리신법 분석

하륜이 직접 관여한 그의 선영과 왕릉을 살펴보면 그의 풍수관과 지리신법의 이론체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그가 관여한 그의 부모 묘소와 왕릉의 입지를 자세히 점검해 보고자 한다.

1) 호순신과 지리신법

하륜은 기본적으로 유학자이지만 천문이나 의술·풍수·관상 등의 잡학

6)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12월 11일.

京畿左右道都觀察使河崙上言：“都邑宜在國中。雞籠山地偏於南，與東西北面相阻。且臣嘗葬臣父，粗聞風水諸書。今聞雞籠之地，山自乾來，水流巽去，是宋朝胡舜臣所謂水破長生衰敗立至之地，不宜建都。”上命進書，令判門下府事權仲和、判三司事鄭道傳、判中樞院事南在等，與崙參考，且覆驗前朝諸山陵吉凶以聞。於是，以奉常寺諸山陵形止、案山水來去考之，吉凶皆契，乃命孝生罷新都之役，中外大悅。胡氏之書，自此始行。上命以前朝書雲觀所藏秘錄文書，盡授崙考閱，更覽遷都之地以聞。

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이런 부분에 전문가 수준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⁷⁾ 하륜은 호순신⁸⁾의 지리신법으로 신도안 천도의 불가함을 역설하였는데, 지리신법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리신법』상권에서는 음양오행, 포태법 및 구성론(九星論)을 바탕으로 하는 풍수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저자 호순신은 특히 구성론을 강조하여 제4장 수론에서 제11장 녹존론(祿存論)까지 구성에 대해 각론적으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상권이 주로 이기론을 다룬 것에 반해, 하권은 형세론적 요소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형세론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알려진 장서(葬書)를 철저히 이기론화 시킨 내용이다. 예컨대 래룡, 청룡, 백호, 주산 등을 다루면서도 그 모양을 위주로 하지 않고, 어떤 방위에 있느냐를 더 중요시하는 이기론 풍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⁹⁾

호순신의 지리신법은 이전 고려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하륜이 주창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기론 풍수이다. 그러나 신도안 천도가 하륜의 상소에 의해 취소되면서 그 이후로는 풍수고시과목¹⁰⁾으로 입지를 공공히 하게 되고, 조선의 풍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¹¹⁾

2) 부친(하윤린) 묘소의 풍수입지와 한계

하륜의 상소 중 지리신법에 의한 것은 다음 대목이다.

-
- 7) 박윤규, 『재상(한국편)』, 이가서, 2005, 282쪽.
 8) 호순신의 정확한 생애와 활동에 인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소주(蘇州) 부지(府志)에 의하면 호순신은 소흥 연간(1131-1162)에 생존하였던 사람으로 적계(績溪)에서 오(吳)지방으로 이사를 하여 살았다. 풍수와 음양술에 통달하여 세상에 전하는 江西地理新法이 호순신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http://korea-fengshui.com>
 9) 호순신, 김두규 옮김, 『지리신법』, 장락출판사, 2001, 11~18쪽.
 10) 조선조에는 풍수고시과목으로 청오경, 금랑경, 지리신법, 명산론, 지리문정, 감룡경, 착맥부, 의룡경, 동립조담 등이 있는데, 지리신법은 그 중에서도 4대 고시과목으로 들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어진 풍수이론이다.
 11) 목효지는 단종의 생모 현덕왕후의 묘 터를 지리신법으로 풀이해 상소를 올렸고, 박자우는 의인왕후의 능 자리를 평가하는데, 인용하였으며, 박상익은 관우사당 동묘 터를 선정하는데 적용하였다. 위의 책, 29-33쪽.

신이 일찍이 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면서 풍수 관계의 여러 서적을 대강 열람했는데, 지금 듣건대 계룡산의 땅은, 산은 건방(乾方)에서 오고 물은 손방(巽方)으로 흘러간다 하니, 이것은 송나라 호순신이 이른바, 물이 장생(長生)을 파(破)하여 쇠퇴(衰敗)가 곧 닥치는 땅'이므로, 도읍을 건설하는데 적당하지 못합니다.¹²⁾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이 일찍이 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면서 풍수 관계의 여러 서적을 대강 열람했다'는 내용이다. 즉 상소를 올리기 전에 그의 부친 묘를 선정한 것인데, 부친 진양부원군 하윤린(河允潾)의 사망은 상소를 올리기 직전으로 보인다.¹³⁾ 따라서 하윤린의 묘를 보면 어느 정도 하륜의 풍수관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하륜의 조·부모 묘소 〈그림 2〉 하륜 묘소

2009년 3월 21일 필자촬영

그의 부친과 모친 묘는 진주 미천면 오방리 산166 조부모 묘소 밑에 위치했으며, 이웃 능선에는 하륜(1348~1416) 자신의 묘가 있다. 아마도 그의 부친 묘를 조성하면서 자신의 신후지지를 미리 마련해 두었다가 그의 사

12) 『태조실록』 권2, 태조2년 12월 11일.

“且臣嘗葬臣父，粗聞風水諸書。今聞雞龍之地，山自乾來，水流巽去，是宋朝胡舜臣所謂水破長生衰敗立至之地，不宜建都”

13) 그는 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이승인(李崇仁)·권근(權近) 등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함으로써 초기에는 조선 왕조 건국에 반대했다. 그러나 곧 권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변신을 하여 1393년(태조2) 경기좌도도관찰출척사가 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정도전(鄭道傳)과의 불화로 그다지 비중 있는 직책을 맡지 못했다. 1394년 첨서중추원사가 되었으나 父親喪으로 사직했다.

후 이곳에 쓰여 진 것으로 보이는데, 3대가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가족 묘역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곳 묘는 남향(子坐午向)으로 하륜이 주장한 지리신법의 이론체계에 의하면 산은 북쪽(子方)에서 오고(대오행 분류 水山) 물은 동남방으로 빠지고 있다. 이는 수구가 구성법으로는 파군(破軍)이 되고, 포태법으로는 묘고(墓庫)가 된다. 기본적으로 파군수는 들어오고 나가는 물이 모두 흉하기 때문에 지리신법에 맞지 않는 불길한 땅이 된다. 그러나 건곤간손(乾坤艮巽) 파구(破口)는 육수(六秀)¹⁴⁾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길한 방위가 된다는 것이다.

파군의 물은 오고감이 모두 불길하다. 특히 파군 방향으로 물이 흘러 나가는 것은 재앙이 심하다. 파군은 절명·사룡·살요(殺耀)라고도 하는데, 형벌과 겁탈, 나쁜 질병을 주관한다. 그러나 건곤간손방위에서 파군수가 오고 감은 오히려 길한 것이 된다. 건곤간손은 육수(六秀)이기 때문이다.¹⁵⁾

이렇듯 지리신법의 이론체계에 의하면 하륜의 부친 묘는 적법한 땅이 된다. 그러나 지리신법에는 적법할지라도 기본적 산의 형세는 많이 부족하다. 우선 그의 부친 묘가 있는 능선은 주산 이래 특별한 변화 없이 거의 직룡의 상태인데, 직룡은 죽은 용으로 간주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관계로 묘가 있는 능선은 누에가 껍질을 벗듯 탈바꿈을 하지 못해 온통 청석으로 형성된 것이다. 참고로 청석은 험석 중 하나로 풍수에서는 찬 땅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불량하게 간주한다.

두 번째는 혈처를 보호하고 감싸주는 청룡·백호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곳과 같이 물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는 지형에서는 청룡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곳의 좌측 능선 청룡은 물과 함께 빠지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퇴전필(退田筆)이라 하여 불리하게 여긴다.¹⁶⁾ 세 번째는

14) 艮, 丙, 辛, 巽, 兌, 丁 방위에 좋은 산이 있는 것을 말한다.

15) 호순신, 앞의 책, 115~116쪽.

16) 산과 물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향하면 전답을 모두 잃어버려 재물의 손해가 심하다는 산이다.

앞쪽의 안산에 깊은 골이 많아 찢겨진 모습이니, 그 형태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참고로 안산은 혈처를 향해 깨끗하게 면을 펼쳐 유정함을 보여야 좋다.¹⁷⁾ 네 번째는 묘 앞으로 흐르는 오방천 물길이다. 풍수에서 물길은 들어오는 물 득수는 길고, 나가는 물 파구는 짧아야 함을 원칙으로 여긴다. 즉 물은 재물과 경제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급은 안정적이고 수요는 절제됨을 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 오방천의 물길은 득수는 짧고 파구는 길게 늘어지고 있어 불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나가는 물은 가급적 크게 굽이치며 흘러야 길한 것이다.¹⁸⁾



〈그림 3〉 하륜 선영의 물길, 2009년 3월 21일 필자촬영



〈그림 4〉 하륜 선영의 지형도, 필자작성

17) 案山有之屈曲 塚與宅皆凶也(안산에 굴곡이 많으면 묘나 집에서 모두 흉하다). 김종철, 『명당요결』, 꿈이 있는 집, 1991, 310쪽.

18) 水之出口欲其彎環屈曲, 顧我欲留爲妙(물의 출구는 굽이쳐 꿈틀거리야 하고, 나를 돌아보고 머무르고자 해야 한다.) 서선계·서선술, 김동규 옮김, 『인자수지』, 명문당, 1992, 826쪽.

이상을 요약하면 이곳 오방리 선영은 비록 지리신법에는 적법하였으나, 풍수의 기본인 용혈사수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은 땅이라 하겠다. 당시 하륜과 같은 지위라면 전국 어디라도 이곳 이상 되는 터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곳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곳의 풍수적 조건이 지리신법 이론에 입각했을 때 만족스럽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하륜의 무악산 풍수입지론

계룡산 신도 공사가 취소된 후에 신도 후보지로 등장한 것이 무악이다. 무악은 곧 지금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안산(鞍山)을 말하는 것으로 연희동과 신촌 일대가 도읍지가 될 만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악 부근이 도읍지로 부적당하다고 말하는데도 하륜은 끝까지 무악 도읍 설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였다.¹⁹⁾

영삼사사 권중화, 좌시중 조준 등이 무악(毋岳)으로부터 돌아와서 아뢰었다. “무악(毋岳) 남쪽은 땅이 좁아서 도읍을 옮길 수 없습니다.” 좌도도관찰사(左道都觀察使) 하륜만이 홀로 아뢰기를, “무악의 명당이 비록 협착한 듯하지만, 송도의 강안전과 평양의 장락궁과 비교하면 조금 넓은 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려 왕조의 秘錄과 중국에서 통행하는 지리의 법에도 모두 부합합니다.”하였다.²⁰⁾

첨서중추원사(僉書中樞院事) 하윤(河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 옛 도읍으로 국가를 오래 유지한 것은 계림과 평양뿐입니다. 무악의 국세가 비록 낮고 좁다 하더라도, 계림과 평양에 비하여 궁궐의 터가 실로 넓고, 더구나 나라의 중앙에 있어 조운이 통하며, 안팎으로 둘러싸인 산과 물이 또한 증빙할 만하여, 우리나라 전현(前賢)의 비기(秘記)에 대부분 서로 부합되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지리에 대한 제가(諸家)들의 산과 물이 안으로 모여든다는 설과도 서로 가까우므로, 전일 면 대하여 물으실 때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임금이

19) www.seoul600.seoul.go.kr (검색일: 2011. 10. 21.)

20)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 2월 23일.

일어남에는 스스로 천명을 갖고 있는 것이나, 도움을 정하는 일은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한때의 인심에 순응하여 민폐를 덜려면 송도에 그대로 있을 것이요, 전현의 말씀에 의하여 만세의 터전을 세우려면 이보다 나은 곳이 없습니다.”²¹⁾

하륜이 주장한 무악산 일대는 한강과 가까워 그의 말대로 조운의 편리함을 갖추고 있다. 이곳을 지리신법으로 계측하면 신촌일대를 궁궐로 가정했을 때 무악산은 축방(丑方, 동북방)이며, 한강은 건방(乾方, 북서방)으로 흐른다. 이는 토산(土山)에 문곡파(文曲破)가 되어 역시 지리신법의 이론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조정 대신들의 말처럼 명당이 좁고 용호도 갖추지 못해 일국의 도읍지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땅이다. 특히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도성을 방어하기에는 산이 낮고 취약하다는 점은 공감을 얻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결정적인 취약점은 한강이 용산을 지나서 마포 인근부터 한강 하류까지 약 23km가 곧고 길게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풍수에서 가장 꺼리는 직류수인 것이다. 실제로 한강이 직수로 흐르는 마포 이후부터 임진강과 합류하는 하류까지는 서울과 가까운 곳이라는 지리적이점이 있지만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다.²²⁾



〈그림 5〉 한강 하류의 직류수

4) 건원릉의 풍수입지 분석

건원릉은 태종의 지시에 의해 김인귀의 추천으로 하륜이 결정한다.²³⁾

21)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8월 12일.

22) 1990년대 파주인근에 일산신도시가 생겼으나 생산성 없는 베드타운일 뿐이다.

23) 흔히들 말하는 무학대사와의 관련은 야사에 지나지 않는다. 건원릉으로의 농지 결정은

하륜에 대한 태종의 신임으로 본다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건원릉의 좌향을 하륜이 즐겨 사용하는 지리신법으로 걱정하면 다음과 같다. 건원릉의 좌향은 계좌정향(癸坐丁向)이며, 파구는 관리사무소 방향으로 비스듬한 병방(丙方)으로 빠진다. 이는 지리신법 대오행(大五行)에 의하면 토산(土山)이 되고 파구는 녹존(祿存)에 해당되는 길지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병방(丙方)으로 흐르는 물은 최고의 길지로 표현하고 있다.²⁴⁾

그러나 건원릉은 지리신법의 판단과는 달리 형세론적 관점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만을 열거하면, 주산이 양쪽 봉우리보다 낮아 웅색한 모습이고, 백호는 건원릉의 과협처를 치고 있다. 특히 혈처에 이르러 현무정의 좌측이 함몰하여 빈약한 모습인데, 이는 용세의 품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됨에도 간과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건원릉 앞으로 길게 빠지는 직류수는 불리한 형태가 된다. 한편 음택의 동기감응은 묘를 쓰고 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건원릉 이후 태어난 왕족은 4대 임금 문종부터인데, 수양대군의 계유정란으로 인해 단종은 폐위되어 사사되고, 안평대군과 금성대군 등은 수양대군에 의해 처형되는 골육상쟁을 겪게 되며, 그 이후로도 왕실은 계속되는 우환에 처하게 된다. 즉 음택 동기감응의 논리로 보면 건원릉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터가 된다. 이는 결국 지리신법 이론체계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태종실록』 권15, 태종8년 6월 28일.

산릉을 양주의 검암(儉巖)에 정하였다.

검교 참찬의정부사 김인귀가 하운 등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사는 검암에 길지가 있다.”하였다. 하운 등이 가서 보니 과연 좋았다. 조묘 도감 제조 박자청이 공장을 거느리고 역사를 시작하였다

24) 甲·庚·丙·壬으로 물이 흐르면 이를 귀원이라 하는데, 최상의 길지가 된다. 호순신, 앞의 책, 122쪽.

〈표 1〉 건원릉 이후 왕실의 계보

태조 1335-1408	태종 1367-1422	세종 1397-1450	문종 1414-1452	단종 1441-1457
			세조(수양대군) 1417-1468	의경세자 20세 요절 예종 20세 요절
			안평대군 36세에 계유정란으로 처형됨	
			임영대군	
			광평대군 20세 요절	
			금성대군 32세에 수양대군에게 처형됨	
			평원대군 19세 요절	
			영웅대군 34세 졸	

5) 현릉의 풍수입지 분석

하륜은 조선의 개국부터 풍수로서 조정의 실세로 등장하고 은퇴한 70세 까지도 태종의 명으로 함흥에 있는 왕실의 조상 묘를 살피다가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조선의 풍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다. 그런 까닭에 하륜은 태종의 현릉 자리를 미리 잡아 두게 된다.

좌의정 하륜에게 명하여 광주에 수릉(壽陵)을 보게 하였는데, 지신사 유사눌이 따라갔다가 복명하였다. “광주 서쪽 대모산(大母山) 남쪽에 좋은 땅을 보아 얻었습니다.”²⁵⁾

이것으로 보아 태종은 미리 자신의 수릉을 경기도 광주(현 서초구 내곡동)에 마련하였다. 하륜의 풍수에 대해 신임을 하는 태종이 하륜의 나이가

25) 『태종실록』 권30, 태종 15년 11월 15일.

많아지자 더 늦기 전에 그에게 의탁했을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우려대로 하륜은 대모산에 수릉을 정하고는 그 이듬해 70세로 숨을 거두게 된다. 하륜에 의해 선정된 현릉은 대모산 아래 위치하였다. 용세는 다소 늘어지기는 했지만, 그다지 불리한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좌측 청룡이 거의 90도 가까이 밖으로 휘어지며 반배하고 있다. 그 능선을 따라 현릉 좌측의 물길도 등 돌리며 빠지고 있음은 현릉의 치명적 약점이다. 특히 청룡이 장자를 의미한다는²⁶⁾ 점에서 장자승계를 선호했던 조선 유교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의외라 할 수 있다.

이곳의 산수를 지리신법으로 보면 대모산은 자방(子方, 북쪽)에서 오니 대오행으로 수산(水山)이고, 물은 묘방(卯方, 동쪽)으로 빠지니 구성(九星)의 염정(廉貞)에 해당된다. 이는 지리신법에 의하면 武人의 기질이 있는 적법한 길지가 된다. 하륜이 관여한 모든 터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 지리신법과 형세론의 판단차이

하륜이 평가한 터	지리신법	형세법	불리한 구체적 이유
신도안	불길		
부친 묘	불길	용혈사수 불리	주산 없고, 용맥은 직룡
무악산 아래	길	용호 및 수세 불리	한강이 마포에서 김포까지 직거수
건원릉	대길	용혈사수 불리	주산이 응색하고 물은 직수로 빠짐
현릉	길	청룡 및 수세 불리	현릉의 청룡이 등을 지고 나감

26) 公位 左長中居二右邊三房 此理最優長(공위를 구분함에 좌측은 장자, 가운데는 중자, 우측은 셋째이니, 이 이치가 가장 優長이다). 서선계·서선술, 김동규 옮김, 『인자수지』, 명문당, 1992, 940쪽.

이상의 사례를 종합하면 하륜은 지리신법의 이론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그가 관여한 5곳에 대한 평가는 풍수이론 지리신법에 의하면 모두 적법한 땅이 된다. 그러나 형세론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상반됨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형세론을 도외시한 이기론적 판단은 오류가 많음을 볼 수 있다. 하륜 또한 현장 중심의 형세보다는 이론 중심 글 풍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높은 벼슬아치로서의 신분적 지위가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신도안 입지의 재평가와 비보 제시

1) 신도안의 풍수입지 분석

앞에서 보았듯이 하륜의 상소는 “今聞鷄龍之地 山自乾來 水流巽去…”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의 상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듣기로 계룡의 땅은 산은 북서쪽에서 오고, 물은 동남쪽으로 빠진다.”는 내용이다. 이는 하륜이 현장을 보지 않고 말로만 듣고 천도 불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의 진위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²⁷⁾ 만약 하륜이 신도안을 직접 점검하고 상소를 올렸다면 “今見鷄龍之地 山自乾來 水流巽去, 신이 보기에 계룡의 땅은 산은 북서쪽에서 오고, 물은 동남쪽으로 빠진다.”라는 문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도안에 대한 하륜의 평가는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도안의 모습은 계룡대 제1정문 입구이다. 그곳에서 보았을 때 솥용추와 암용추 양 계곡에서 발원한 물은 계룡대 1정문 앞에서 합류하여 엄사리 방향으로 길게 빠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하륜의 지적처럼 궁궐을 기준으로 계룡산 천황봉은 북서쪽(乾方)에서 오고 두계천 물길은 동남쪽(巽方)으로 흐르는 지형이다. 그러나 실제

27)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림 6〉 계룡산 천황봉과 신도안,
2009년 3월 21일 필자촬영

신도안 내외에서 점검하면 전혀 다른 국세를 이루고 있다. 즉 신도안 중심지는 용호가 교쇄를 해주어 적당한 크기의 국세를 이루고 있으며, 외부에서 보면 신도안 중심지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 좌측 사진에서 보듯이 신도안의 백호가 길게 감싸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륜이 우려한 것처럼 신도안의 물길

동남방으로 빠지는 것은 맞지만, 중심지에서는 물 빠짐이 보이지 않으며, 풍수에서 금기시 하는 직거수가 아님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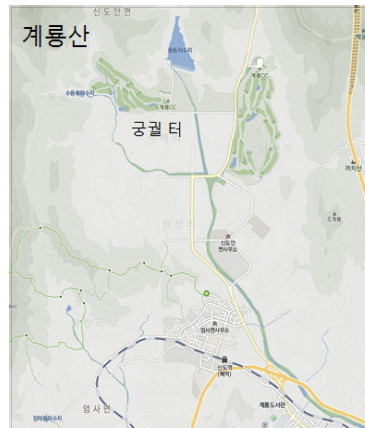
옛 사진을 보면 신도안의 청룡에 해당하는 장구산이 깊숙하게 신도안 궁궐터를 감싸주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궁궐터에서 보면 우측의 솟을추에서 시작된 물의 파구는 거의 병방(丙方)이 된다. 그렇게 되면 장구산의 능선은 내청룡 겸 안산이 되고, 물은 크게 S자 형태로 흐르면서 장풍과 득수의 원칙에 충실한 모습이 된다. 따라서 신도안 전체는 장군봉을 경계로 석계리의 내명당과 정장리의 증명당, 그리고 엄사리의 외명당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형이라면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내명당에 궁궐을 앉히고, 종묘·사직은 장구산 밖 증명당에 배치하며, 민가와 시장 등은 외명당 두계면에 자리하게끔 계획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명당과 증명당의 주요 시설은 두계천의 직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천황봉을 중심으로 용호가 감싸주는 오목한 분지를 이루기 때문에 군사상의 지리적 이점도 따르게 된다. 따라서 하륜이 지적했던 쇠패의 땅이라는 단정은 우려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7〉 신도안의 옛 모습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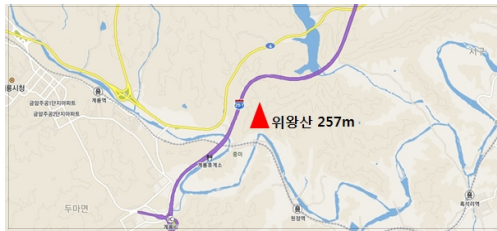
2) 두계천과 위왕산의 비보

풍수에서는 내치(內治)를 주관하는 내명당 물을 중요시 한다. 이때 신도안 대궐평은 우측 솟용추에서 나오는 물을 좌측 장구산이 깊숙하게 감아줌으로 해서 기본적인 자급자족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렇다고 외명당의 물 또한 쉽게 보아 넘길 수 없는 데, 대궐평에서는 물 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림 8〉에서 보듯 약 6km를 곧게 나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내명당과 중명당은 풍요롭지만, 외명당은 빈곤하기 때문에 도움으로서 장구한 세월을 기약할 수 없으니 하륜은 이 점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두계천 물길1
2014년 10월 12일 검색

28) 출처: cafe.daum.net/sindoanfriends (검색일: 2011. 5. 3.)



〈그림9〉 두계천 물길2
2014년 10월 12일 필자작성

〈그림10〉 衛王山
2009년 3월 21일 필자촬영

일정거리를 길게 빠지던 두계천은 원정동의 위왕산(257m)에 이르러 갑자기 급격하게 꿈틀대고 있다.²⁹⁾ 이는 위왕산이라는 북진(北辰) 때문인데, 북진이란 물을 단속하는 수구막이의 일종이며, 국경에서 국토를 수호하는 장수와 같은 역할로 극히 귀하게 여기는 산이다.³⁰⁾ 즉 신도안의 물은 곧게 빠지는 것 같지만, 실은 위왕산으로 인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던 것이다.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말없이 서있는 산 하나가 두계천의 물길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두계천이 외명당에서 직수로 흐르는 하류의 말대로 이로움은 아니다. 따라서 이곳은 약간의 비보가 필요하다. 즉 두계천이 직수로 흐르는 업사리에서 두계리까지 중간지점에 대형 호수를 조성하는 방법이다.³¹⁾ 이는 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시민의 휴식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풍수에 아무리 훌륭한 땅 일지라도 완벽한 땅은 있을 수 없지만³²⁾, 작은 허물로 인해 전체를 단정하는 것도 올바른 판단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9) 마치 무엇에 놀란 것처럼 보인다.

30) 北辰이란 북극성을 뜻하며, 水口에 놀랍고 괴이한 모습의 석산이 우뚝 서있는 모습으로 극존성이라 한다. 와후지지 이상이지만 혈처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
山家最貴北辰星 水口高岩大石蹲 見此便知極貴地 (산가에서 가장 귀한 것이 북진성이니, 수구에 고암대석이 걸터앉은 것이다. 문득 이것이 보이면 極貴地임을 알 것이다.)

31) 천년 동안 마르지 않는 물은, 천년 동안의 재물이 된다.(千年不涸之水 千年不散財) 서선계·서선술, 김동규 옮김, 『인자수지』, 명문당, 1992, 835쪽.

32) 풍수에 완벽하게 아름다운 땅은 없다.(風水無全美)
서선계·서선술, 앞의 책, 962쪽.

3) 계룡대 입지의 풍수해석과 비보

신도안의 현재 모습은 1983년 전두환 대통령시절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군사적 목적으로 3군사령부 이전이 추진되면서부터 이루어졌다. 3군사령부건물은 조선왕조가 계획했던 천황봉을 주산으로 삼는 동남향의 입지와는 다르게 노적봉을 주산으로 삼아 동향으로 배치하였다. 하지만 노적봉을 주산으로 삼다보니 사령부 건물 좌우에서 합수된 물이 정면으로 약 1km정도 곧게 빠지는 형태가 되었다. 내명당의 물은 내치를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사령부건물로서는 치명적 결함이 아닐 수 없다.



〈그림 11〉 계룡대와 물길, 2006년 1월 20일 필자촬영

따라서 이곳에도 앞에서 제시했던 인공호수나 저수지를 조성해 물 빠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법으로 완충지대를 두면 군인들의 휴식공간과 조경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제에 장구산의 옛 모습을 복구해야 한다. 지금은 비록 군 시설물로 훼손되었으나 정성껏 복원한다면 신도안이 형성될 당시의 고유한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3군사령부를 아예 천황봉 아래로 옮기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3군사령부 주산인 노적봉이 파수하는 위왕산에 비해 한참 부족하기 때문이다. 산의 기세와 역량에서 주종이 어긋나는 모습인데, 위왕산이 장수라면 그를 거느릴 산은 두계천 상류에서는 계룡산 천황봉 뿐이 없으므로 당연히 천황봉을 주산으로 삼아 군사령부를 배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천황봉의 웅장한 형태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표방할 것이며, 장구산과 노적봉의 긴밀한 환포는 천연적 성곽이 되어 근작전상의 은폐·엄폐 그리고 보안을 유지하는데 최적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위왕산에 의한 두계천 물의 긴밀한 교쇄와 방비는 어느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임을 말해 준다.

5. 맺음말

계룡산 아래에 자리한 신도안은 태조 이성계의 천도 계획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숱한 논쟁이 있던 곳이다. 조선 초 하륜은 지리신법이 라는 풍수이론을 차용해 엄청난 자금과 인력이 소요된 10개월간의 궁궐 조성 공사를 단번에 중단시킬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현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조선의 권력자들에게 풍수는 매우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듯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하륜의 풍수관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의외로 기본적인 것을 간과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의 조상과 자신이 문힌 진주 선영이다. 이곳은 이기론적 법수에만 치중하다 보니, 용혈사수의 원칙에 크게 위배됨을 볼 수 있다. 만약 하륜이 그러한 논리체계로 신도안을 평가했다면 쇠패지(衰敗地)로 단정한 신도안의 평가도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뿐이 없다. 특히 하륜은 신도안 현장을 보지도 않고 제3자의 말을 듣고 터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것은 불문가지이다.

하륜이 적용한 이기론(지리신법)이 아닌 형세론으로 신도안을 재점검해본 결과는 의외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주산의 당당함과 청룡·백호의 유

정한 감싸줌, 위왕산의 방비는 그 어떠한 땅에 뒤지지 않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도안에 대한 하륜의 평가는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朝鮮王朝實錄』

김두규, 『풍수학사전』, 비봉출판사, 2005.

김종철, 『명당요결』, 꿈이 있는 집, 1991.

대통령비서실, 『청와대건설지』, 1992.

무라야마 지준, 최길성 옮김,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0.

박시익, 『풍수지리와 건축』, 경향신문사, 1999.

박윤규, 『재상(한국편)』, 이가서, 2005.

복응천, 신평 옮김, 『풍수학 설심부』, 관음출판사, 1997.

徐善繼·徐善述, 『地理人子須知』, 臺灣 竹林書局, 1989.

서선계·서선술, 김동규 옮김, 『인자수지』, 명문당, 1992.

원수정, 민중원 옮김, 『지리답자록』, 전국풍수지리학회, 2011.

이케다 마사카즈, 이정환 옮김, 『황제내경』, 청흥, 2009.

조인철, 『우리시대의 풍수』, 민속원, 2008.

조정동, 신평 옮김, 『지리오결』, 동학사, 1999.

지종학, 『풍수지리형세론』, 다사랑, 2010.

_____, 『청와대입지의 재조명』, 관음출판사, 2011.

최창조, 『청오경 금낭경』, 민음사, 1993.

_____,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1990.

호순신, 김두규 옮김, 『지리신법』, 장락, 2001.

<http://korea-fengshui.com>

www.seoul600.seoul.go.kr

cafe.daum.net/sindoanfriends

2. 논문 및 저서

권선정, 「텍스트로서의 신도안 읽기」, 『문화역사지리』 14-3, 2002.

김기모, 「계룡산 도읍지설과 천도논의의 역사적 고찰」, 건양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3.

서정규, 『한양천도에 풍수지리설이 미친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이영숙, 『계룡산·신도안 지역의 문화역사 지리적 성격』,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Abstract>

Revaluation of the Location of Sindoan by Criticism 'Ha-yun' Feng-Shui Theory

Jee, Jong-Hak

Gyeryong-Mountain is located at the bottom of the Sindoan is chosen as capital construction is in progress, the early dawn. However, the sudden emergence of 'Ha-yun' is the new Feng Shui theory geography law boosting the ten months as the Imperial Court construction stops, and the capital of the former is being canceled. Huge funds and manpower for construction by the end of the Feng Shui, put in a nutshell, was enough to stop the ruling class consists of powerful Feng Shui to the established ideology. Since then even Hayun advocated Girisinbub makes a profound impact on the shipbuilding Feng Shui. However, in modern times it weighed Girisinbub of the theory have been pointed out serious errors on the system. 'Ha-yun' Girisinbub about what he claimed were involved in this King's Tomb, the mausoleum and as a result the parent check many errors have been found. If you look at in the context of such a 'Ha-yun' this is neat as a new capital city in flames is also needed, review the godless Sindoan approached different Feng Shui theory this results for 'Ha-yun' was a positive assessment of the judgements and drawn the other. Evaluation on the Sindoan front, therefore, should be reconsidered. Located in the South Korean army headquarters in Sindoan and believe South Koreans for new discussion, Sindoan is referred to as the land of hope by many people is the place where, if the land is once again so many years invariably seriously need to access.

* Key Words: 'Ha-yun', Feng Shui, Sindoan, Gyeryong-Mountain, Girisinbub

· 논문투고일: 2014년 10월 4일 · 심사완료일: 2014년 11월 5일 · 게재결정일: 2014년 11월 27일